

한성대신문

1976년 12월 15일 창간

www.hansungnews.com

2025년 10월 20일 월요일 제615호

지면안내 03 사회
학위 공장으로 전락한 학점은행제

04-05 기획
낱아빠진 학칙에 얽매인 오늘의 청년

06 학술
얼굴, 지갑을 여는 열쇠가 되다

08 광고
제40회 한성문학상 현상공모



사각지대 vs 안전, 기숙사 통금 두고 갑론을박

▲새벽 5시, 학생들이 상상빌리지 앞에서 통금 시간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본교 기숙사 통금 규정에 대한 기숙사 입주생(이하 기숙사생)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취재 결과 일부 학생들은 통금시간 기숙사 출입문 폐쇄 후 안전성 문제와 학습 제한 등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두 의견에 대해 글로벌빌리지는 해당하지 않았으나 상상빌리지와 우촌학사 기숙사생에게 두드러진 고충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대학본부 측은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통금규정이 존재하므로 앞으로도 해당 규정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 본교의 기숙사는 ▲상상빌리지 ▲우촌학사 ▲글로벌빌리지 등이 마련돼 있다. 상상빌리지와 우촌학사의 경우 본교 생활관 홈페이지에 안내된 생활안내 및 상벌규정에 따라 운영된다. 생활관 규정에 따

면 기숙사 출입금지 시간은 오전 12시부터 오전 5시로 규정되며, 해당 시간대에 '외박 신청을 하지 않고 외박한 자'와 '출입문 폐쇄 시간에 기숙사를 들어오는 자'에게 벌점 5점이 부여된다. 벌점의 합이 20점 이상인 기숙사생은 강제퇴사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외박 신청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본교 생활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오후 10시 이후 신청을 원할 경우 각 기숙사 사감에게 직접 연락해 협의해야 한다. 글로벌빌리지의 경우 본교 국제학생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명시된 기숙사 체류정보 규정을 따르고 있다.

기숙사생은 통금시간 기숙사 출입이 불가한 점이 기숙사생의 안전성을 해친다고 말한다. 출입금지 시간에 기숙사로 복귀할

경우 벌점이 부과되므로 이를 피하고자 야간에 외부 시설에서 머무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상상빌리지에 거주 중인 조형기(상상력 1) 학생은 "친구들과의 모임 등 개인일정으로 인해 오전 1시를 넘어 갈 경우 기숙사생은 갈 곳이 없다"며 "벌점이 부과되지 않도록 PC방 등의 외부 공간에서 자거나 밖을 맴돌아야만 한다"고 토로했다. 우촌학사에 거주하고 있는 조병근(문콘 1) 학생은 "통금으로 인해 기숙사로 돌아가지 못하고 외부에서 밤을 세워야 했다"며 "우촌학사의 경우 교외에 위치해 있으며 근처에 차량이 많고 주변이 어두워 안전에 위협을 느낀 경험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기숙사의 규제에 대해 불만이 존재하는

한편, 수면과 안전을 위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했다. 만약 통금제가 폐지돼 새벽에 돌아다니는 학생이 생긴다면 소음으로 불편사항이 증가할 것이라는 견해다. 상상빌리지에 거주하는 김성현(AI응용 1) 학생은 "통금이 존재하는 현재도 늦은 시간에 통화하거나 이야기를 하면 소란스러운 경향이 있다"며 "해당 규정이 폐지된다면 학생들이 돌아다니는 소음으로 인해 수면에 더욱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학본부는 통금시간과 관련한 안전성 문제에 대해 출입금지 시간에 입실하더라도 기숙사별로 운영 중인 상점 프로그램을 통해 벌점을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진경(상상빌리지) 행정실장은 "기숙사생들이 출입금지 시간 이후에 입실해 벌점을 받더라도 이를 만회할 기회를 제공하려 다양한 상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며 "통금으로 인해 기숙사 밖에 머물다 안전상의 위협을 느낄 경우 벌점을 받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엄우호(우촌학사) 사감은 "통금시간이 부재하다면 외부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점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지는 않지만 강제퇴사 기준에 근접한 학생들에게는 별도의 활동을 제공해 상점을 부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기숙사생이 통금 시간에 맞춰 학습을 수행하기에 제약으로 작용한다고 호소했다. 출입금지 시간 이후에도 교내의 도서관, 독서실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싶지만 불가능하다는 견해다. 상상빌리지에 거주하고 있는 강승환(사회과학 1) 학생은 "시험기간에 관계없이 과제나 공부할 때 도서관 등의 공간을 활용하고 싶으나 불가능해 방 안에서만 학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형기 학생은 "개인적으로 기숙사 안에서는 집중하기 어려워 막상 학습을 진행하려 해도 다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함께 거주하는 기숙사생이 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

서 불을 키면 피해가 갈 것으로 우려돼 불편한 마음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조병근 학생은 우촌학사 특성상 상상빌리지처럼 기숙사 내부에서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폐문 시간 이후에도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여유롭게 통금 규정을 운영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대학본부는 시험기간 기숙사별 시설이나 규정 완화를 통해 학습을 보장하고 있으나, 그 외의 경우 안전을 고려해 출입금지 시간대는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임 행정실장은 "상상빌리지 내에 독서실이 마련돼 있으며 시험기간 전후로 총 3주 동안은 24시간 운영되고 있으므로 해당 공간을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엄 사감은 "우촌학사의 경우 시험기간에 2주 정도 기숙사 출입금지를 일시 해제하고 있다"며 "4인이 생활하는 기숙사이기에 학습하기엔 어려움을 겪는 것을 이해하지만 안전을 위해 규정대로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생들의 의견 전반과 관련해 대학본부는 학생들의 안전 확보가 우선이므로 기숙사 규정을 준수하길 바란다는 의견을 전했다. 임 행정실장은 "학생들의 편의와 안전한 단체생활이 동시에 유지되기 위해 규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지해주기를 바란다"며 "기숙사에 입사한 만큼 책임감 있게 안전한 생활을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엄 사감은 "학교는 기숙생의 안전을 관리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기에 출입금지 시간이 존재해야 한다"며 "기숙사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학가에서는 기숙사 통금 시간에 대해 여유로운 기준을 적용하거나 통금제 폐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기도 하다.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는 2020년 「인권친화적 대학기숙사 공동생활 가이드라인」을 통해 학교와 학생들의 이해와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권고하기도 했다.

조수윤 기자 wateryun77@naver.com

학교운영경비 법정 기준 80% 못 미쳐

지난해 본교의 학교운영경비(이하 운영경비) 부담률이 기준 미달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2024년 본교 운영경비 부담률은 기준치인 80%에 못 미치는 76.5%였다.

운영경비란 인건비를 제외한 학교와 부속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8조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매년 법인인 토지, 건물 등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의 80% 이상을 운영경비로 충당해야 한다. 성열환(한국사학진흥재단 재정통계분석부) 부장은 "수익 창출 목적에서 발생한 재산 소득의 대부분을 운영경비로 충당하도록 의무 부여한 것이 운영경비의 핵심"이라며 "운영경비는 교육이 영리의 수단이 되는 것을 막고 공공적 가치를 지키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로, 교육 투자와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대학본부는 학교법인 한성학원(이하 한성학원)의 수익금이 늘어나면서, 전체 수익금에서 전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졌다고 전했다. 또한 법인 운영비가 증가해 상대적으로 전출금 비중이 줄어들면서 운영경비 부담률이 낮아졌다고 덧붙였다. 한성학원은 매년 수익금을 ▲법인 운영비 ▲대학 전출금 ▲한성여중·고 전출금 등으로 나눠 사용한다. 한성학원은 학교법인의 수익금이 증가하며 수익금 대비 비율이 낮아졌다고 부연했다. 또한 법인 운영비 비중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전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들어 운영경비 부담률이 낮아졌다고 전했다.

더불어 한성학원이 대학 외에도 한성여중·고에 전출금을 지급하는 구조적 특성이 부담률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성학원은 수익금이 복수 학교로 분산돼 대학으로 환원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로 낮다. 이로 인해 단일 대학을 운영하는 법인에 비해 재정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설명이다.

대학본부는 물가 상승 등으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김예진(법인사무국) 팀원은 "물가 상승과 더불어 한성학원은 한성여중·고에 대한 지원도 병행하고 있어 부담이 높다"며 "대학 전출금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법인의 책무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전했다. 성 부장은 "현재 많은 대학이 재정난을 겪고 있다"며 "수익성이 없는 토지를 처분하고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재산으로 전환해 수익성을 높여 운영경비를 충분히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출금 : 학교법인이 학교회계에 지원하는 자금을 법인회계에서 학교회계로 전출하는 경비

임지민 기자 seeshuron@naver.com

한성학원·한성대 기념식

“새로운 100년 향한 각오 다져야”



사진: 임지민 기자

▲한성발전공헌상 수상자가 이창원 총장으로부터 포상을 수여받고 있다.

한성학원 설립 80주년 및 한성대학교 개교 53주년 기념식(이하 기념식)이 지난 1일 낙산관 대강당, 상상관 등에서 개최됐다. 이번 기념식에는 문동후(학교법인 한성학원) 이사장, 이창원 총장, 홍영화(한성여자고등학교) 교장, 남궁미경(한성여자중학교) 교장 등 교내외 인사들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는 식전 행사와 분행사 낙산관 대강당에서 이뤄졌으며, ▲개회사 ▲연혁보고 ▲기념사 ▲축사 ▲이사장상 표창 ▲장기근속자 표창 ▲한성발전공헌 포상 ▲기념촬영 등의 순서로 행사가 구성됐다. 2부는 내·외빈 및 참석 구성원들의 식사가 케이크 한상과 교직원 식당에서 진행됐다. 이후 카페 한담과 컨퍼런스홀에서 각각 학교기업 카페 한담 및 12층 학습공간 개관식과 한

성발전공헌 포상이 이뤄졌다. 한성발전공헌 포상은 시간 관계상 대표 5인 시상 후 2부에서 추가 75인이 수상했다.

이사장상 표창은 남궁미경(한성여자중학교) 교장, 배현주(한성여자고등학교) 총동문회장, 장명희 교학부총장, 박철우(콘텐츠디자인칼리지) 부원장 등 4명이 시상받았다. 장기근속자 표창은 서영모(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교수, 김진환(컴퓨터공학부) 교수, 정영모(기계전자공학부) 교수, 최기흥(기계전자공학부) 교수 등 34명에게 상을 수여했다. 한성발전공헌 포상은 홍규전 전 주한헝가리대사관 대사, 유연철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박성수 태성자산운용 대표이사, 김지현(ICT디자인학부) 교수, 정미영(대학원교학팀) 팀장, 김태민(IT융합 4) 학생 등 총 80명에게 시상이

이뤄졌다. 문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한성학원은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며 참된 인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인재 길러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총장은 축사에서 “한성이 걸어온 시간은 모두가 만든 성과”라며 “과거의 영광에 머물지 않고 미래의 100년을 향한 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모두의 힘을 모아 한다”고 말했다. 이번 한성발전공헌 포상 수상에 대해 김 학생은 “SW중심대학 디지털 경진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 포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 더 책임감을 갖고 역량을 발전시켜 학교와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지민 기자 seeshuron@naver.com

김산 기자 kimsan060421@naver.com



사진: 임지민 기자

한양도성길 걷기 행사로 하나된 한성인 '제1회 한성대, 한양도성길 함께 걸어요' 행사가 한성학원 설립 80주년 및 개교 53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1일 진행됐다. 제40대 총학생회 'WE:RO'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재학생 및 졸업동문, 교직원, 지역 주민 등 총 120명이 참가했다. 행사는 ▲집결 ▲오리엔테이션 ▲거북이 하이킹 ▲저녁 프로그램 순으로 진행됐다. 거북이 하이킹은 상상관 앞 잔디광장에서 출발해 ▲낙산공원 ▲낙산성곽길 ▲해화문 ▲와룡공원 ▲말바위 안내소 ▲숙정문 ▲성북천 분수광장으로 이어지는 약 8.5km의 코스로 구성됐다. 이영재(사회과학 3) 총학생회장은 “한성학원 설립과 본교의 개교를 기념하기 위해 뜻깊은 행사를 주관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며 “하이킹 코스에 언덕길이 많았지만 학우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행사가 됐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이동학(미래모빌리티 1) 학생은 “여러 단과대가 함께하는 행사가 만큼 다양한 사람과 도성길을 걸으며 소통할 수 있어 좋은 경험이었다”며 “앞으로 이런 행사가 더욱 활발히 이뤄지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산 기자 kimsan060421@naver.com

연구원 지하 2층 모빌리티 동행랩 신설

지난 2일 모빌리티 동행랩(이하 동행랩)이 연구관 지하 2층에 개관했다. 동행랩은 이동약자의 이동 편의성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교육 시설로, 이동편의 지원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개관과 함께 해당 공간에 있던 VR·AR 스튜디오는 철거됐다. 미래모빌리티학과 학생이 동행랩의 주 이용 대상이며, 동행랩에 마련돼 있는 웨어러블 기기는 지역사회 구성원도 이용 가능하다.

동행랩 신설은 지난 6월 본교가 RISE 사업 수행대학으로 선정된 것의 일환이다. RISE 사업의 3가지 단위과제 중 ‘지역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신설된 곳이 동행랩이다. 본교는 지역 현안 문제 해결의 세부과제로 ‘이동약자의 이동 편의성 개선’을 설정한 바 있다. 해당 사업은 5년간 추진될 예정이며, 이후의 지속 여부는 연구 성과에 따라 결정된다.

동행랩에서는 이동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기기의 연구와



▲모빌리티 동행랩 개관식에서 이창원 총장이 발언하고 있다.

실증 테스트가 진행된다. ▲전동보행기 ▲낙상 방지기 ▲스마트 지팡이 등 웨어러블 보조기기를 대상으로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한다. 이후 성북구와 성동구 소재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 대상 기기 체험이 이뤄질 예정이다.

동행랩과 연계된 전공 교과목도 신설됐다. 미래모빌리티학과 전공 교과목인 ‘스마트모빌리티 운영’이 신설된다. 지역 현안 문제 해결 단위과제 책임자인 노광현

(미래모빌리티학과) 교수는 “내년부터 지역 현안 문제 해결 마이크로 디그리를 신설해 지역 현안 문제의 정의부터 해결책까지 도출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 교수는 “동행랩이 단순한 연구시설을 넘어 시민과 함께 걷는 모빌리티 혁신 플랫폼으로 자리하길 바란다”며 “향후 교내 구성원들의 다양한 로봇 교육 및 R&D 공간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산 기자 kimsan060421@naver.com

교수진 교류 위한 Faculty Lounge 개관

지난 2일 ‘Faculty Lounge’(이하 라운지)가 연구관 9층에서 개관했다. 지난 6월 기획조정처산하 한성미래연구소 주관으로 실시한 전임교원 대상 설문조사가 라운지의 기반이 됐다. 라운지는 교수진을 위한 복합형 휴게·업무 공간으로 교내 연구 및 행정 업무 지원, 교수 간 교류 증진 등을 위해 활용된다. 내부 공간은 ▲업무 공간 ▲회의실 ▲휴게 공간 ▲행정서비스 통합창구 등으로 조성됐다. 학생은 연구 및 학술 세미나 등의 목적을 갖는 경우 사전 예약 절차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라운지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되며, 방학 중에도 동일하게 운영될 예정이다.

업무 공간에는 프린터와 복합기, 회의용 모니터 등의 설비가 갖춰져 있다. 회의실은 총 2곳이 있으며 4인용 테이블 4개와 회의 진행을 위



▲연구원 9층에 조성된 라운지의 전경

한 TV가 구비된 6인용 회의실 2곳이 존재한다. 휴게 공간은 커피머신과 간단한 다과를 즐길 수 있는 중앙 테이블이 비치돼 있다. 행정서비스 통합 창구에서는 전담 인력이 상주해 연구 및 서류 업무를 지원한다. 김지현(교수지원팀) 팀장은 “현재 회의실은 별도의 예약 없이 이용할 수 있으나, 이용 희망자가 늘고

있어 온라인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팀장은 “교수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라운지의 기능과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라운지를 통해 본교 교수진 간의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연우 기자 er253637@gmail.com

성북천에 퍼진 청년의 활기

‘성북구 청년 일자리박람회-취업준비 미리보기 Season 2’(이하 일자리박람회)와 ‘청년의 날 축제-요즘 청년 FESTA’(이하 축제)가 성북천 마루광장에서 지난 19·20일 양일간 열렸다. 일자리박람회는 청년층에게 일자리 고용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축제는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성북구청이 주관했으며, 성북청년축제기획단이 함께 축제 준비에 참여했다. 해당 행사에는 이승로 성북구청장, 강동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 등의 인사가 참석했다.

일자리박람회는 ▲공개모의면접 ▲취업특강 ▲기업소개 등을 진행했다. 이력서 첨삭 및 직무상담, 청년 정책 및 사업 안내 등을 포함해 총 28개의 부스가 운영됐다. 본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도 행사에 청년 지원 사업 소개 부스로 참여했다. 이은영(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직원은 “취업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의 존재를 알리고 싶었다”며



▲청년의 날 축제에 참가해 무대를 선보이는 댄스 동아리 'NOD'

“부스 운영에 있어 청년 누구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기에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전했다.

축제는 ▲무대 프로그램 ▲부스 프로그램 ▲이벤트 등으로 이뤄졌다. 무대 프로그램에는 본교 댄스 동아리 ‘NOD’가 공연에 참여했다. 본교의 뷰티매니지먼트학과도 퍼스널컬러와 두피 진단 등의 전공 관련 부스를 운영했다. 김도민(뷰티 3) NOD 회장은 “청년의 날 축제

를 기념하는 교외 행사이기에 주민과 화합할 수 있는 아이돌 곡의 무대를 선보였다”고 말했다.

축제를 기획한 정진환(성북구청 일자리정책과 청년지원팀) 팀장은 “한성대학교 등 관내 대학교와 청년 관련 시설의 참여로 주민과 청년 모두가 함께할 수 있었다”며 “내년에도 더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수연 기자 wateryun77@naver.com

학위 공장으로 전락한 학점은행제

157,066명. 지난해 학점은행제를 이용하기 위해 등록한 학습자 수다. 학점은행제는 평생교육을 위한 주요사업으로, 새로운 전공을 탐구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이들에게 열린 배움의 길을 제시해왔다. 제도가 시행된 지 20여 년이 지난 지금, 일각에서는 '배움'보다 '학위'를 얻기 위한 통로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학점은행제는 정규 대학 교육 밖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학습 경험을 인정해 누구나 평생교육의 기회를 이어가며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국민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정규 대학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 이들을 위한 대안 교육체제로 도입됐다.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교육부로부터 승인받은 대학이나 평생교육시설 등의 교육훈련기관에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박지숙(경일대학교 평생교육학부) 교수는 "학교 밖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교육받은 내용을 학점으로 인정받게 된다면 평생학습사회를 만드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논의에서 시작된 제도"라고 설명했다.

학점은행제를 수강하는 학습자는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이수한다. 이는 교육부가 인정한 정규 대학 수준의 학점은행제 전용 교육과정으로, 전공·교양·일반선택 과목 등이 포함된다. 상술한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해당 과정을 수강하면 학점이 인정된다.

학습자는 이수절차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나 대학의 장 명의로 학위를 수여받는다. 총 80학점을 이수하면 전문학사 학위가 주어지고 총 140학점을 취득하면 학사학위가 부여된다. 이 안에서 학습자는 평가인정 학습과정과 자격증, 실습 등을 스스로 구성해 학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학 학사 학위를 목표로 하는 학습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사회복지개론·사회복지행정론 등 학습과정을 이수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이후 건강강정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관련 자격 학점이 추가로 인정되며 사회복지 관련 기관에서의 현장실습도 학점으로 반영된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취득한 학위는 대학의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해 얻는 학위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학점은행제를 활용하면 학위취득 뿐 아니라 이수한 과정에 따라 사회복지사 2급, 평생교육사 2·3급 등의 전문자격증을 얻을 수 있다. 또한 국가기술자격 시험과 편입학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도

부여된다. 김대유(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은 "학점은행제는 대학에서 인증되는 사항과 같이 학위를 취득하고 자격증을 이수받는다"며 "제도의 특성상 기존 대학의 과정보다 짧게 이수할 수 있다는 특징이 존재한다"고 전했다.

이렇듯 폭넓게 운영되는 학점은행제에서 평가인정 학습과정 설계가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문제는 이를 지원하는 '학습플래너'의 전문성 부족이다.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교육훈련기관 내에는 학습자가 희망하는 전공이나 자격을 체계적으로 안내해 주는 학습플래너가 존재한다. 그러나 일부 학습플래너가 제시한 교육과정이 부실해 학습자가 학점을 이수하지 못하거나 과정을 진행하는 중 소통 부재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박 교수는 "학습플래너라고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교육훈련기관에 소속돼 근무하는 직원들을 말한다"며 "학습자는 수강료 개념으로 학습 플래너에게 돈을 지불하고도 오히려 피해를 입기도 한다"고 밝혔다.

일부 부실한 교육과정도 존재한다. 국가 평생교육진흥원의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의 사회적 경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11.6%가 '교육내용의 질 강화 및 콘텐츠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학습자가 보다 전문적인 학습을 요구하더라도 그에 원하는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제재도 무의미하다. 수업 운영과 학습자 모집 등에 관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상대로 벌점을 부과하지만 이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 2024년 정성국(국민의힘) 의원의 2020년부터 5년간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181개의 교육훈련기관이 벌점을 받았으나, 평가인정 취소는 단 2회 이뤄진 것에 그쳤다.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수도권 편중도 한계로 지적된다. 학점은행제 정보공시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국 380개중 187곳이 서울에 몰려 있으며 비수도권은 고작 116곳에 그쳤다. 특히 기술, 예능계 학원의 경우에는 서울에만 집중돼 있는 실정이다. 이는 평생교육의 균등한 기회 제공이라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있다. 박 교수는 "서울과 같은 도시에는 교육받을 수 있는 곳이 많다"며 "아무리 원격으로 교육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에서 공부하기를 원하

는 사람들에겐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전언했다.

학습플래너로 인한 문제가 만연하지만, 정부의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학습플래너로 인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나 안내문을 배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실질적으로 제도 운영을 제한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이유에서다. 김 부소장은 "학점은행제는 각 기관의 상당한 자율성을 요구하기에 내부에서 이뤄지는 학습플래너 등의 사례를 제한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수업 평가의 부실은 평가 절차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다. 출석 수업의 경우 교육 콘텐츠보다는 수업 시설에 대한 기준만 엄격하게 적용되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온라인 수업에서는 콘텐츠 평가가 이뤄지지만, 2023년 기준 264명의 평가위원이 3,263개의 원격수업 학습과정을 확인해야 한다. 한 과정 당 500분 이상에 달하는 교육 내용을 모두 세밀히 확인하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뒤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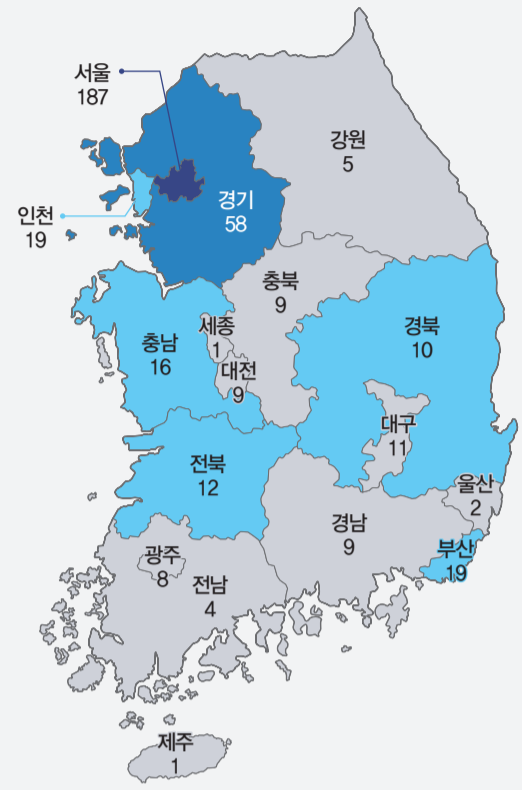
현재 학점은행제 벌점을 부과하는 현행 제도의 기준이 단계별 학습과정에만 적용되는 점에 기인한다. 제재의 대상이 교육훈련기관 전체가 아니라 개별 학습과정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교육과정 운영에 반복적인 문제가 발생해도 기관 자체를 제도에서 배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다. 강대중(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학습과정을 평가인정하고 있기에 기관을 제재하기 어렵다"며 "기관의 평가를 위해 어떤 지위를 부여할 것인지 등의 논의가 요구될 것"이라고 전했다.

수도권 편중의 근본 원인은 정부의 지원이 새로운 연구·교육 개발보다는 이미 교육 기반이 갖춰진 지역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지역별 수요나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채 획일적인 교육 제공 방식에 머무르고 있다. 그렇다보니 기관 운영자 입장에서도 지방으로 확장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실정이다. 김 부소장은 "정부에서는 이러한 특화된 교육과정 수립의 필요성을 인지하지만 정책적으로 실현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학습플래너의 과실로 인한 학습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이들의 활동에는 제약이 필요하다고 전문가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수

● 100건 이상 ● 50건 이상 100건 미만 ● 10건 이상 50건 미만 ● 1건 이상 10건 미만



*기준 : 2025년
*자료 출처 : 학점은행제 정보공시

들은 입을 모은다. 학습자의 학습 전반을 함께하며 책임지는 만큼 오히려 해를 끼치는 이들은 제한해야 한다는 견해다. 강 교수는 "학습플래너가 야기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전문가들은 부실한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기관의 사전 평가 단계에서 개방적인 평가 방식이 도입돼야 한다고 말한다. 단순 시설 점검에 그치지 않고 교육훈련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 부소장은 "정부가 앞으로 학습과정 전반에 관해 소통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인식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각 수업과정별로만 벌점이 부과되는 현행 제도에 더해 정부가 교육훈련기관 전체를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방안도 제시된다. 개별 과정 단위의 제재를 넘어 기관 차원에서 교육의 질을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성국(국민의힘) 의원은 "현재는 벌점을 부과하더라도

긴장감 없이 점검되기에 낯은 규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학점은행제가 지역의 특성과 연계해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방 대학 등과 연합해 비수도권 지역에도 다양한 학습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산업과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대학 중심의 확장 운영이 이뤄진다면 지역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부소장은 "지금보다 학교 등과 같은 시설이 협력해 학습자들이 필요에 따라 자문을 구하고 현장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로 발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학점은행제는 도입 당시의 취지인 '평생교육의 실현'을 되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현재의 단순한 학위 취득 수단에서 벗어나, 학습자의 역량과 성장을 중심에 두고 배움이 일상과 이어지는 평생학습 체계로 재검토돼야 한다는 견해다. 김 부소장은 "배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수윤 기자 wateryun77@naver.com

입기자의 외교 노트

한일 정상, 상생의 물꼬를 트다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한국과 일본이 미래 협력의 청사진을 그렸다. 지난 30일 부산에서 개최된 한일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한일 과학기술협력위원회 재개 ▲한반도 비핵화 및 안보 공조 ▲한일 공동 사회문제 협의체 정례화 등의 의제가 다뤄졌다. 양국은 셔틀외교를 통해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제도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두 정상은 한 달 동안 두 차례의 회담을 가지며 셔틀외교를 본격화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회담은 이시바 총리의 퇴임을 앞두고 열린 만큼 한일 우호 협력 기조를 차기 정부로 이어가려는 의미도 담고 있다.

한일 협력을 위해 두 정상은 '한일 과학기술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 재가동을 약속했다. 2009년 이후 한일 과거사 갈등 심화로 인해 중단됐던 위원회를 회복시켜 AI·수소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공동 대응에 나선다. 이를 통해 공동 연구, 인적 교류, 정보교환 등의 협력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주희(연세대학교 정치외교연구소) 전문연구

원은 "오랜 기간 중단됐던 협의체를 활용하고 과학 기술 발전에 관해 장래 양국의 협력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전문가들은 한일 과학기술 협력이 산업 전반의 연결 고리를 긴밀히 이어줄 것으로 내다본다. 위원회를 통해 연구개발 정책을 조율할 뿐 아니라 산업체와 연구진을 직접적으로 연결시켜 연구 및 직무 경험을 확장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석정(국립외교원) 연구교수는 "이번 합의는 청년 연구자에게 국제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양국 산업 연계를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국은 공동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의 가교도 놓았다. '한일 공동 사회문제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해 ▲저출산·고령화 ▲국토 균형발전 ▲농업 ▲방재 ▲자살 문제 등의 문제를 논의한다. 향후 협의체에서는 사회적 난제의 공동 해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실제로 회담 당일 제1차 협의체를 구성해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협의체를 통해 한일이 정책 연계성과 실

효성을 높이는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양 정상이 외교 현안을 넘어 각국의 사회문제를 공동의 과제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이유에서다. 협의체를 통해 한국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에 보다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 전문연구원은 "이번 협의체는 한일 양국이 단순한 국가 관계를 넘어 국민의 일상과 연결된 구조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북극항로 공동 활용 가능성 및 경제·무역 협력의 물꼬를 트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북극항로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해상 운송 경로로 한국은 부산을, 일본은 홋카이도를 북극항로의 중간 거점으로 조성해 동북아 물류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구상이다. 오는 10월 31일에 개최될 APCE 정상회의를 앞두고 북극항로를 포함한 해상 운송 효율화와 공급망 안전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분석된다. 남기정(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교수는 "북극항로 협력은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 지

역의 해상 물류·경제 협력을 본격적으로 확대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는 한일 협력이 무역 구조의 다변화와 글로벌 공급망을 지탱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북극항로 활용 논의는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산업·물류 협력의 기반 마련과 역내 경제 안정성 확보에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영근(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교수는 "북극항로 공동 활용 논의는 한일 양국의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구체화한다"며 "향후 아시아-유럽 물류 연결성을 높이는 중요한 협력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회담은 한일이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뻗어나가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논의된 안건이 국민의 생활 부문과 직결돼 있으며, 양국이 이해관계 조정의 가능성을 탐색했기 때문이다. 나아가 일본의 차기 내각과도 협력의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도 제시된다. 남 교수는 "정책 조정은 양국 간 협력 체계를 제도화

하고 장기적 실행력을 확보하는 데 필수"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한국이 과거사 문제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협력의 폭을 넓히되 역사 인식의 균형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남 교수는 "중요한 건 한국이 과거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인식을 지녔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회담 이후 한국이 실무 성과 관리를 체계화하고 후속 협력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전언한다. 양국의 과학기술·사회문제 협력이 청년층의 해외 진출과 연구 기회 확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안건 전반이 청년에게 미칠 영향이 직접적인 만큼 단기 성과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실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윤 연구교수는 "이번 회담은 청년층의 해외 진출 기회를 늘린다"며 "한일은 협력 이행에 대한 실무 성과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지민 기자 seeshuron@naver.com

얼굴, 지갑을 여는 열쇠가 된다

지갑을 꺼내지 않아도 얼굴만 비추면 결제가 이뤄지는 세상을 상상해본 적 있는가. 이제 그러한 모습은 상상이 아닌 현실로 실현되고 있다. 이미 국내외 여러 매장에서 얼굴 인식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가 도입되고 있다. 카드나 스마트폰과 같은 별도의 결제 수단 없이 얼굴 인식만으로 간편하게 결제가 이뤄지는 기술이 바로 '페이스페이(Facepay)'다.

페이스페이는 얼굴 인식 기술을 이용해 사람의 얼굴만으로 결제가 이뤄지는 서비스다. 카메라가 사용자의 얼굴을 3D로 스캔하면 인공지능이 눈, 코, 입 등의 특징을 숫자로 바꿔 저장한다. 결제할 때 단말기가 얼굴을 다시 인식해 서버에 저장된 얼굴 데이터와 비교하고 일정 수준 이상 일치하면 결제가 승인된다. 이규빈(GIST AI융합학과) 교수는 "페이스페이는 고성능 센서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사람들의 얼굴을 빠르고 정확하게 구별하는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인공지능이 만든 얼굴의 언어

페이스페이는 ▲3D 얼굴 스캔 ▲랜드마크 추출 ▲임베딩 벡터화 ▲실시간 인증 ▲복호화 등의 과정을 통해 작동한다. 먼저 페이스페이의 핵심이 되는 사용자의 얼굴 형태를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3D 얼굴 스캔' 과정을 거친다. 3D 얼굴 스캔은 'SL(Structured Light) 방식'과 'ToF(Time-of-Flight) 방식'으로 구분된다. 이중 SL 방식은 카메라와 적외선 빛을 쏘는 프로젝터를 이용한다. 프로젝터가 얼굴에 패턴 형태의 적외선을 비추면 얼굴의 굴곡에 따라 빛의 모양이 달라진다. 카메라는 이 변형된 패턴을 촬영해 얼굴의 깊이 정보를 계산한다. 김익재(KIST AI·로봇연구소) 소장은 "SL 방식은 고해상도의 3D 데이터를 얻는 데 유리하지만, 햇빛 등 외부의 강한 적외선이 패턴을 교란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SL 방식으로 얼굴의 굴곡을 구하기 위해서는 '삼각측량법'이 활용된다. 삼각측량법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시점에서 동일한 대상을 관찰할 때 형성되는 삼각형의 기하학적 원리를 이용한다. 서로 다른 위치에 존재하는 프로젝터와 카메라, 얼굴 위의 한 점을 연결하면 하나의 삼각형이 만들어진다. 이때 프로젝터가 얼굴에 비춘 적외선 패턴은 얼굴의 굴곡에 따라 변형되고 카메라는 이 변형된 패턴을 촬영한다. 이후 각도 차이와 거리 정보를 계산하면 얼굴의 각 지점까지의 깊이를 정밀하게 산출할 수 있다. 이러한 계산이 얼굴 전체의 수천 개 지점에서 동시에 이뤄지면 얼굴의 미세한 굴곡까지 반영된 3차원 모델이 완성된다.

SL 방식이 빛의 패턴 왜곡을 통해 얼굴의 깊이를 계산했다면, ToF 방식은 빛이 이동하는 시간을 측정해 얼굴의 형태를 인식한다. 프로젝터가 사용자의 얼굴에 적외선을 발사하면 빛이 얼굴에 반사돼 다시 센서로 돌아온다. 이때 빛이 발사된 시점부터 되비쳐 돌아올 때까지 걸린 시간을 측정해 얼굴의 굴곡을 구한다.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는 물리 법칙을 토대로 측정하는 방식이다. 김소장은 "ToF 방식은 외부 광원의 영향을 덜 받지만, 정밀도가 다소 낮을 수 있다는 한계를 갖는다"고 부연했다.

3D 얼굴 스캔으로 수집된 정보는 눈, 코, 입 등 얼굴의 주요 특징점을 찾아 좌표값으로 변환하는 '랜드마크 추출' 단계로 이어진다. 여기서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이 활용된다. CNN은 이미지 속의 여러 부분에서 패턴을 찾아내 전체적인 형태를 인식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다. 예를 들어 사람의 얼굴 사진을 인식할 때 CNN은 눈·코·입의 형태와 위치를 픽셀 단위로 분석해 각 부위의 패턴을 학습하고 이를 종합해 특정 인물의 얼굴 특징과 일치 여부를 판단한다. 김 소장은 "CNN은 이미지의 공간적 구조를 유지하면서 효율적으로 특징을 추출한다"고 전했다.

랜드마크 추출을 위해 CNN은 가장 먼저 '합성곱 연산'을 활용한다. 합성곱 연산은 이미지 속에서 특정한 패턴이나 특징을 찾아내는 과정이다. 이미지는 수많은 픽셀로 이뤄져 있으며 각 픽셀은 밝기나 색상을 숫자로 표현한다. 합성곱 연산은 이 픽셀 배열 위에 '필터'를 겹쳐가며 필터 안의 픽셀 값들을 곱하고 더하는 계산을 반복한다. 이때 필터는 일종의 돋보기처럼 작동해 이미지의 작은 부분을 살펴보고서, 모서리, 곡선 등의 형태를 찾아내는 역할을 한다. 필터가 이미지를 조금씩 이동하며 연산을 수행하면 이미지 속에서 특정한 모양이나 질감이 두드러지는 부분이 드러난다. 이 결과가 바로 '특징 맵'으로 얼굴의 눈, 코, 입처럼 인식에 중요한 패턴이 어디에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나타낸다. 이 교수는 "합성곱 연산은 특정한 패턴을 탐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말했다.

합성곱 연산 이후에는 이미지에서 불필요한 정보를 줄이고 핵심적인 특징만 추출하기 위해 '풀링 연산'이 이뤄진다. 풀링 연산은 합성곱을 통해 만들어진 특징 맵을 일정한 구역으로 나눈 뒤 각 구역에서 가장 대표적인 값만을 남기는 과정이다. 합성곱 연산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증가하는 데이터량을 감소시키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이미지의 가장 뚜렷한 특징만 남게 돼 계산량이 줄어든다. 이렇게 합성곱과 풀링 연산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컴퓨터가 얼굴의 주요 특징을 단계적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 교수는 "풀링 연산은 합성곱 연산의 결과를 요약하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앞선 단계에서 사용자의 얼굴을 스캔해 특징점을 분석했다면 이제 이러한 정보를 숫자로 변환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임베딩 벡터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얼굴의 형태, 눈·코·입의 위치, 윤곽선 등이 수치화돼 '벡터'로 표현된다. 여기서 벡터란 눈의 간격, 코의 길이, 턱의 각도 등 얼굴의 여러 특징을 각각 숫자로 바꿔 한 줄에 나열한 좌표 형태의 데이터를 의미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벡터는 각 얼굴을 고유하게 구분할 수 있는 좌표값으로 작용하며, 서로 다른 얼굴 간의 유사도나 차이를 계산하는 데 활용된다. 김 소장은 "임베딩 벡터화는 얼굴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컴퓨터가 빠르고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좌표로 바꾸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생성된 벡터는 특정한 암호키를 이용해 암호화된 형태로 결제사의 서버에 저장된다. 사용자의 얼굴 정보를 숫자로 변환한 벡터를 암호키로 잠그면 누군가가 서버에 접근하더라도 암호키가 없는 사람은 그 내용을 해독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개인의 얼굴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변조되는 위험을 최소화함과 더불어 결제 과정에서도 빠르고 안전하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암호화된 정보는 결제 시 진행되는 '실시간 인증' 단계에서 사용자의 얼굴을 확인할 때 활용된다. 사용자가 매장에서 결제 시 단말기의 카메라가 사용자의 얼굴을 스캔해 결제사의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와 대조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때 '라이브니스(Liveness)' 기술이 활용된다. 라이브니스는 얼굴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사진 또는 동영상을 이용한 사용자의 결제 시도를 막는 기술이다.

암호화된 정보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복호화' 단계를 거쳐야 한다. 복호화는 암호화의 반대 과정으로 암호화된 데이터를 다시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되돌리는 절차다. 이 단계에서는 암호화할 때 사용한 암호키를 이용해 데이터를 해제하고, 복원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인식된 얼굴 데이터와 비교한다. 이렇게 복호화된 정보가 서버에 등록된 얼굴 데이터와 일정 수준 이상의 유사도를 보이면 본인 인증이 완료되고 최종적으로 결제가 승인된다.



편리함에 신뢰를 더하다

페이스페이는 강화된 보안 체계를 적용했다. 결제 과정에서는 라이브니스 기술과 비정상적인 결제 패턴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등이 작동해 잠재적인 위험을 최소화한다. 김 소장은 "페이스 아이디가 편리한 개인 인증에 초점을 맞췄다면 페이스페이는 신뢰할 수 있는 결제를 위한 보안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안 관리 체계의 제도적 미비에 대한 지적도 이어진다. 개인정보위원회는 페이스페이 운영 사업자들이 고유 식별정보와 안전 인식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사전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이러한 관리·감독이 법적 의무는 아니기 때문이다. 황진석(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

대학원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정부는 얼굴 인식 등 생체 인식 정보 활용과 관련한 법률 조항을 개선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문가들은 페이스페이가 앞으로 더욱 여러 분야로 확대될 것이라 전망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무인 키오스크, 산업현장의 출입 관리 등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백영현(유니온바이오메트릭스 AI생체인식연구소) 소장은 "페이스페이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증 정확도와 신뢰도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며 "향후 비대면 서비스의 확산과 함께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높은 활용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변위 : 물체의 위치 변화량을 나타내는 값

김혜윤 기자 purple.pea06@gmail.com



**2026학년도 전기 한성대학교 대학원
신입생·편입생 모집**

내일로

한 걸음 더 내딛는다

성장이 더디게 느껴질 때
노력만으로 부족함을 느낄 때
한성대 대학원이 곁에 있습니다.
당신의 힘찬 도약을 함께합니다.

[일반대학원(주간)]				
대학원	학위구분	모집계열	모집학과	모집전공
일반대학원	박사	인문계	한국어교육학과	
			사학과	
			문화콘텐츠학과	
			문화콘텐츠학과	
			경영학과	
	사회계	행정학과		
		무역학과		
		경제·부동산학과		
		국제이주협력학과		
		산림경영학과		
공학계	정보컴퓨터공학과			
	기계시스템공학과			
	미디어디자인학과			
	에·채용계			
	융합예술학과**			
학과간 협동과정	지식서비스·컨설팅학과			
	한국어교육학과			
	사학과			
	영어영문학과			
	문화콘텐츠학과			
석사	사회계	경영학과		
		행정학과		
		경제학과		
		국제이주협력학과		
		산림경영학과		
	공학계	컴퓨터공학과		
		전자정보공학과		
		IT융합공학과		
		기계시스템공학과		
		융합예술학과		
에·채용계	시용학과			
	융합보안학과			
	회계학과			
	무역학과			
	미디어디자인학과			
학과간 협동과정	이스포츠콘텐츠학과**			
	뉴미디어광고프로모션학과			

[특수대학원(야간)]				
대학원	학위구분	모집계열	모집학과	모집전공
경영대학원	석사	사회계	경영학과	경영관리*
			호텔관광경영학과	호텔경영, 관광경영, 외식경영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마케팅, 글로벌경영
행정대학원	석사	사회계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상담, 사회복지사
			사회안전학과	사회안전정책, 사회안전관리
			뷰티예술학과	메이크업디자인, 헤어디자인, 뷰티에스테틱
예술대학원	석사	에·채용계	뷰티산업융합학과	예술경영복지, 화장품산업
			글로벌뷰티학과**	글로벌뷰티(메이크업·헤어·스킨케어·뷰티산업·한국어)**
			안보정책학과	국방안보, 위기관리, 군사전략
국방과학기술대학원	석사	사회계	국방정책학과	국방정책, 국방혁신
			국방정책학과	국방주요정책, 국방사안관리, 국방시설
			국방정책학과	국방정책, 국방혁신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석사	사회계	지식서비스·컨설팅학과	메·K(제조)컨설팅, 컨버전스컨설팅, ESG경영컨설팅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영컨설팅(외국인유학생 전담), 베트남어·한국어**
			미래융합컨설팅학과	융합프랜차이즈컨설팅
부동산대학원	석사	사회계	부동산학과	부동산사기방지·관리전공, 스마트부동산·프롤테크전공
			자산관리학과**	글로벌자산관리전공(미국인유학생 전담), 영어트랙** 금융부동산자산관리전공(외국인유학생 전담)
교육대학원	석사	인문계	상담심리전공, 유아교육전공, AI·SW융합교육전공	

* 모집인원은 각 학과(전공) ○영/○○영
** 비모집학과(전공) 발생에 따라 모집 학과(전공)는 변경될 수 있음. 최종 모집 학과(전공)는 인터넷 원서접수 시 확인 요망
* 경영대학원 경영관리전공은 외국대학발전정책지원과 모집 없음
** 외국인유학생 전담학과(영문/외문) 별도의 외국인유학생선정담당과 모집요강 참조
*** 산실학과임. 별도의 외국인유학생선정학과 모집요강 참조

[중소기업 계약학과(야간): 계약학과전형(정원의 1%)]

대학원	학위구분	모집계열	모집학과	모집전공
일반대학원	박사	학과간 협동과정	스마트융합컨설팅학과	스마트융합컨설팅, 스마트융합계측, 스마트팩토리컨설팅, ESG융합컨설팅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석사	사회계	스마트융합컨설팅학과	스마트융합컨설팅, 스마트융합계측, 스마트팩토리컨설팅, ESG융합컨설팅

* 계약학과전형 지원자는 [대학원홈페이지-입학안내-입학공지]에 게시된 별도의 모집요강을 통해 세부사항 및 제출서류 확인 요망

[원서접수 및 발표]

- 원서접수기간: 2025. 10. 20(월) 10:00 ~ 11. 3(월) 17:00
- 접수방법: [대학원홈페이지 - 입학안내 - 모집요강]에서 모집요강 확인 후 유웨이(www.uwayapply.com)를 통해 인터넷접수
- 면접고사: 2025. 11. 22(토) 10:00 학과(전공) 지원인원에 따라 면접고사 일정 및 일정 조정이 있을 수 있음
- 합격자발표: 2025. 12. 4(목) 오후 대학원홈페이지 참조
- 전화문의: (02)760-4271(대학원 교학팀)
- 홈페이지: https://gs.hansung.ac.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 홈페이지 참고 또는 전화문의 바랍니다.

한성대학교 대학원 (02876) 서울시 성북구 상선로 16길 116 한성대학교 대학원 교학팀(상관 1002호)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사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삼 학 송 ·

구조화된 침묵이 허물어질 그날을 기다리며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의 현장에 스며들지 못하는 뼈저린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 결과, 전체 정부 부처 가운데 각 부처의 자문 역할을 맡는 정부위원회는 청년위원 비율이 10%에 미치지 못하는 곳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특별시와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일 경우 청년위원을 10% 이상 둘 것을 의무화했음에도 현실에선 반영되지 않는 씁쓸한 모습이다.

청년의 정치참여 부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방의회나 정당 등 각종 공공기관에서도 청년은 극히 소수에 머물러, 희미한 발언으로 존재를 드러낼 뿐이다. 대학 내 학생자치기구의 선출에서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여러 대학이 후보 기근과 낮은 투표율로 대표 선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청년 개인의 탓만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사회 전반이 정치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구조를 허락하지 않으며 '침묵의 구조화'를 고착시켰기 때문이다. 정치는 단순히 정당이나 선거를 의미하지 않는다. 공동체 안에서 자원의 분배와 의사결정, 권력 관계가 작동하는 모든 장면이 곧 정치다. 선택이 일어나는 곳에 언제나 정치성이 따라붙는다는 의미다. 그러나 청년은 그 경계 밖에서 '정치적으로 말할 수 없는 존재'로 길러져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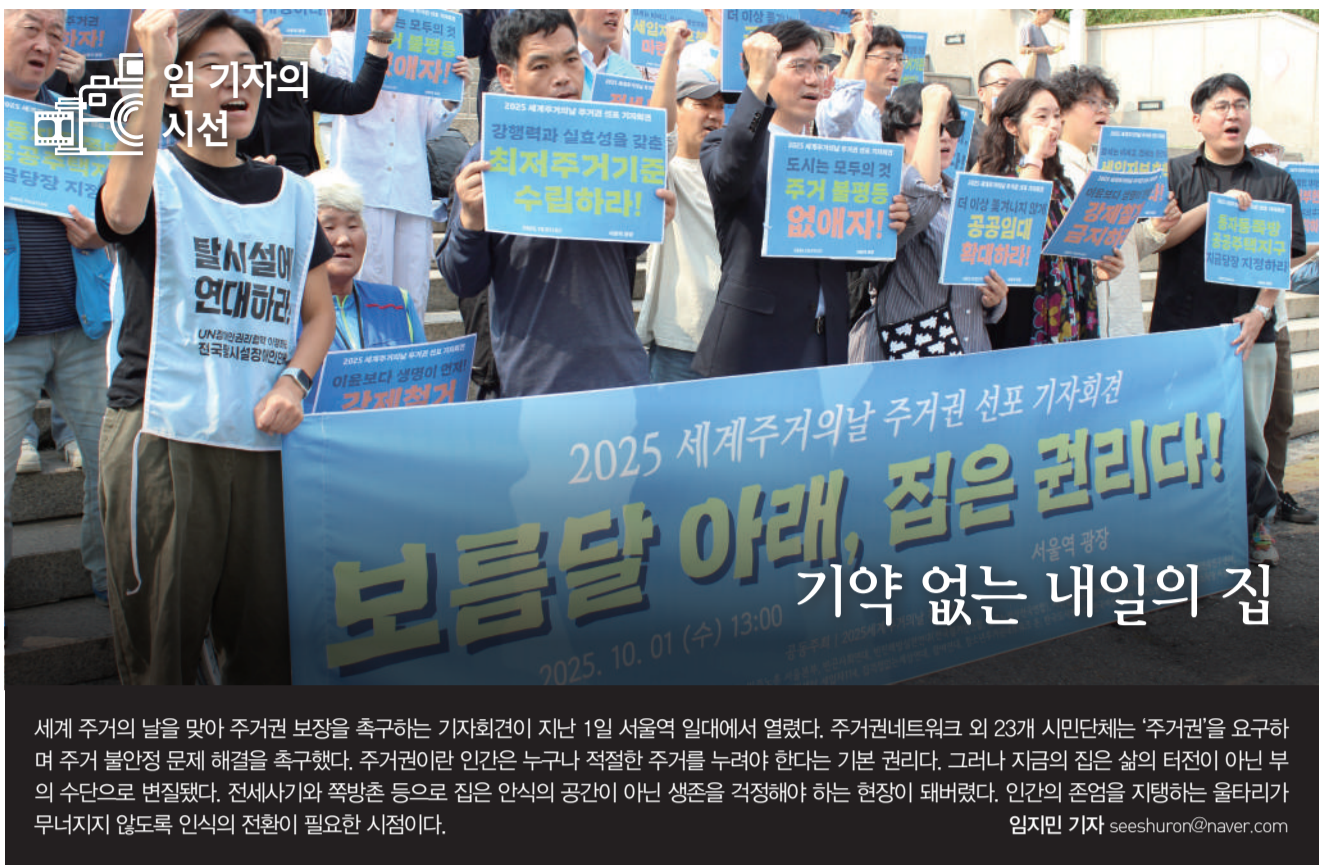
학문의 자유를 가치로 내건 대학조차 정치 앞에선 유난히 조용하다. 학칙을

통해 집회·시위·집단지 결사 등의 정치적 의견 표출 행위를 금지하며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제약하고 학생활동이 총장의 승인을 받아 진행할 수 있음이 명시돼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학생활동은 사회 쟁점을 논의하고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는 민주적인 토론의 씨앗으로, 대학 공동체의 자율성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길러내는 출발점이 된다. 그동안 대학은 건강한 토양을 만들어 씨앗이 스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라기도 전에 싹을 자르는 것이 능사라 여겨온 건 아닐까.

물론 "대학이 무엇이기에 정치 참여까지 보장해야 하느냐"는 물음이 뒤따를 수 있다. 대학은 지식을 사유로 전환하는 사회적 성찰의 장이라고 답하고 싶다. 공공의 문제를 인식하고 의견을 나누는 열린 공간이라는 의미다. 대학이 정치로부터 거리를 두는 순간, 학문은 현실과 단절되고 공유와 성찰의 기능을 잃은 채 스스로 뿌리를 잘라내는 셈이 된다.

한 사람의 질문, 한 번의 토론, 한 차례의 공론장이 축적될 때 그것은 침묵을 깨는 촉매가 된다. 그 촉매는 소란이 아니라 혼란된 사유와 책임 있는 발화를 낳고, 학생은 공동체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성숙한 시민으로 자라난다. 변화의 씨앗이 대학 안에서 움트길 바라며, 그곳이 침묵을 깨는 첫 번째 촉매로 피어오를 그날을 기다려본다.

이승희 편집국장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주거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지난 1일 서울역 일대에서 열렸다. 주거권네트워크 외 23개 시민단체는 '주거권'을 요구하며 주거 불안정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주거권이란 인간은 누구나 적절한 주거를 누려야 한다는 기본 권리다. 그러나 지금의 집은 삶의 터전이 아닌 부의 수단으로 변질됐다. 전세사기와 폭방촌 등으로 집은 안식의 공간이 아닌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현상이 돼버렸다. 인간의 존엄을 지탱하는 울타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임지민 기자 seeshuron@naver.com**

■ 기자수첩 넓은 정책에 갇힌 생활체육의 현주소

'생활체육'이 수년째 제자리걸음에 머물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서 실시한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생활체육 참여율은 2014년 43.5%에서 2024년 49.5%다. 10년간 단 6% 증가에 그쳤다. 매년 투입된 수천억 원의 예산과 다양해진 생활체육 종목을 고려해보면 저조한 결과다.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한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이다. 경쟁과 성적을 위해 선수를 길러내는 '엘리트 체육'과 달리 생활체육은 생애 과정 전반에 걸쳐 있다. 신체적인 건강에도 도움을 주지만, 고단한 삶 속 또 다른 힘이 되기도 한다. 누군가는 퇴근 후 한강변에서 달리며 그날의 고민을 털어내고, 누군가는 단체 스포츠 활동을 통해 자신이 의미 있는 존재

임을 느낀다. 그러나 정부와 국민의 꾸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생활체육은 몇 년째 제자리걸음 중이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추진하는 주요 사업이 다른 탓이다. 레저스포츠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다가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에 집중하고, 전문직 체육지도자 양성에 몰두하기도 한다. 한 가지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는 것이 아닌 당대 정부의 성과에 치중돼 단기적인 프로젝트만 반복되는 것이다.

분산된 부처 조직에서 수립하는 일관성 없는 계획도 문제로 작용한다. 우리나라의 생활체육 정책은 문체부를 비롯해 각 지자체,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여러 기관이 수립하고 집행한다. 이는 각 기관마다 추구하는 정책의 방향성이 달라져 정책

의 연계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생활체육 관련 정책의 수립·집행을 하나의 부처에서 전담해야 한다. 정부로부터 예산만 인준받고 실질적인 정책은 하나의 부처에 일임하는 형태다. 실제로 잉글랜드에서는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기구인 스포츠 잉글랜드(Sport England)를 운영 중이다.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지만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 독립적인 권한을 가진다. 해당 기구의 구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으로 잉글랜드 국민들의 생활체육 참여율은 매우 높게 나타난다. 이제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생활체육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단순 취미가 아닌, 평생 함께하는 생활체육이 되기를 바란다.

김산 기자 kimsan060421@naver.com

낙산만평

김혜윤 기자 purple.peal06@gmail.com



■ 낙산에 올라 손쉬운 A+의 유혹, 사라지는 사고력의 경계에서

대학가에 생성형 AI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알바천국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 78%가 학업에 생성형 AI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 대비 3배 증가한 수치다. 특히 공학계열(82.4%), 의학계열(82.9%), 자연과학(80%) 등 이공계 학생의 비율이 높고, 주로 과제와 리포트 작성(88.6%)에 사용된다.

AI는 마치 지식의 바다를 향해하는 나침반처럼 정보 탐색에도 활발히 활용되며, 생성형 AI 사용자 94.5%가 학업 능력 향상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또한 71.8%의 학생들은 AI 기술이 미래 일자리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 편리함의 이면에는 우려스러운 현실이 존재한다. AI 기업 무한대의 과제물 평가 서비스 'CK 브

릿지'가 검사한 대학 과제물 29만 건 중 27.3%가 표절 가능성 30% 이상으로 의심되며, 생성형 AI 탐지 솔루션으로 검사한 전체 문서의 55.9%에서 챗GPT와 같은 AI 서비스 이용이 감지됐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77.1%의 대학이 아직 생성형 AI 관련 정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교육 현장은 기술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대학의 AI 활용 가이드라인 연구에서는 교수자와 학습자의 주체성과 책임감을 강조하고, 교육 목적에 부합하는 윤리적 활용 규정이 시급함을 지적하고 있다.

AI는 현대 교육의 양날의 검과 같다. 전례 없는 효율성을 제공하지만, 학생들의 사고

과정을 대체하는 '지적 의존증'을 키울 위험도 있다. 눈앞의 A+ 성적표와 빠른 과제 완성이라는 달콤한 유혹 앞에서, 우리는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잃고 있는 것은 아닐까?

AI 시대의 진정한 교육적 과제는 기술을 금지하거나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AI를 비판적으로 활용하고 검증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있다. 우리는 단순한 결과물보다 고민과 사유의 과정이 갖는 가치를 되새겨야 한다. AI가 인간의 사고를 돕는 도구인지, 아니면 사고력을 대체하는 위험한 대리자인지의 경계는 결국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하호철(패션 1)

■ 의화정

용기 있는 선택 세 가지

"아직도 한 우물만 판다?"는 요즘 학교 홈페이지와 현수막에서 자주 보이는 문장이다. 처음엔 반가웠다. 내가 종종 쓰던 말이기도 하고, 나 스스로 한 우물만 판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수학이라는 우물 하나로는 부족해, 심리학이라는 또 다른 우물을 함께 봤다. 덕분에 지금은 한국에서 드물게 수학과 심리학을 함께 가르치는 교수로 살아가고 있다.

사람들은 가끔 묻는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나요?" 짧게 답하자면, 용기 있는 선택 덕분이었다. 돌이켜 보면 삶은 평생 선택의 연속이었다. 그 선택에는 때로 큰 용기가 필요하고, 종종 책임이 뒤 따른다. 우리 학교 학생들도 각자의 시점에서 수많은 선택 앞에서 있을 것이다. 혹은 스스로 선택하지 못한 채 떠밀리는 순간들도 있을 것이다. 타

인의 선택에 내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결국 그것도 자신의 선택일 수 있다.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하며 살아간다.

내게 가장 용기 있었던 세 가지 선택을 꼽으라면 이렇다. 첫째, 스물네 살에 혼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일이다. 다행히 수학은 장학금을 받기 쉬운 과목이어서 전액 장학금을 받고 유학할 수 있었다. 둘째, 유학 중 남편과 결혼을 결심한 일이다. 모두 합쳐 7년의 장거리 연애와 신혼생활을 보냈다. 이메일도 카카오톡도 없던 시절, 많은 외로움을 견디며 인내를 배웠다. 셋째, 마흔셋의 나이에 다시 상담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한 일이다. 현직 교수로서 다시 학생이 된다는 건 쉽지 않았다.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도 용기 없이 이뤄진 것은 없었다.

용기는 두려움 가운데 앞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 한 몸짓이다. 따라서 두려움이 클수록 용기를 내기는 어렵다. 자신의 기질과 자라는 환경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이 많을수록 용기를 내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그럼에도 용기는 우리 몸의 근육처럼 키워질 수 있는 특성이 있다. 작은 용기를 낼수록 더 큰 용기가 생긴다. 이제 퇴직을 준비하는 교수로서, 사랑하는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용기를 키워라. 용기 있는 선택을 해라.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에 책임져라." 또 한 해를 보내며, 트랙을 선택하고 진로를 정하고 관계를 맺는 모든 순간마다 올바른 용기와 그에 따른 책임이 함께하길 바란다. 용기 있는 선택 세 가지를 꼭 가져보길 바란다.

조난숙(소양·핵심교양학부) 교수

동정란

나명환(사회과학부) 교수

나 교수는 오는 11월 27·28일에 Monash University에서 열리는 'Monash Environmental Economics Workshop 2025' 학술대회에서 'Impact of Urban Sprawl on Greenhouse Gas Emissions' 논문을 발표한다.

민경진(상상력교양대학 기초교양학부) 교수

민 교수는 지난 8월 29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K-MOOC 강좌 '시를 품은 수학, 생활에 스미다'가 블루리본에 선정됐으며, 지난 9월 19일 한국대학경쟁력연구원이 주관하는 '제4회 HHTH 마스터클래스'에서 챔피언 교수상과 공로상을 수상했다.

일상의 조각을 문장으로 새기다

제40회
한성문학상
현상공모



한성대신문